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8-12호
 2018년 6월 29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동성 해양강성 (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2007~2017년 해양경제생산총액
 (단위 :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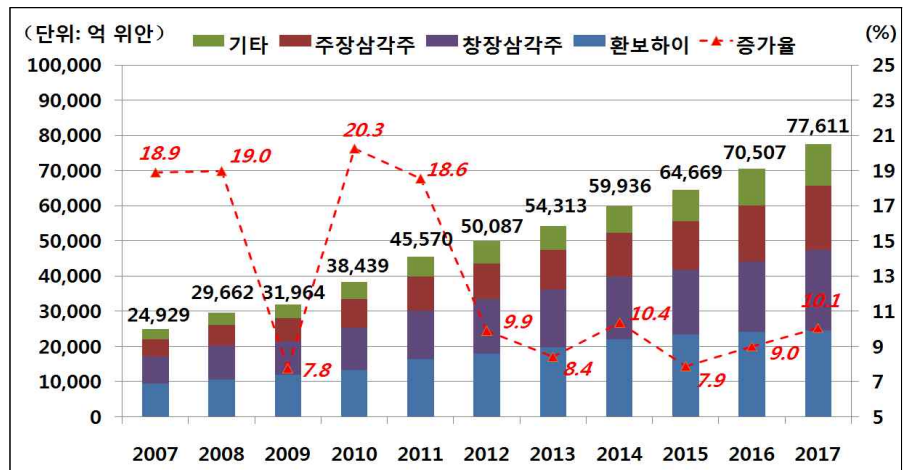
구분	환보하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전국
2007	9,542	7,748	4,755	24,929
2008	10,706	9,584	5,825	29,662
2009	12,015	9,466	6,614	31,964
2010	13,271	12,059	8,291	38,439
2011	16,442	13,721	9,807	45,570
2012	18,078	15,440	10,028	50,087
2013	19,734	16,485	11,284	54,313
2014	22,152	17,739	12,484	59,936
2015	23,437	18,439	13,796	64,669
2016	24,323	19,912	15,895	70,507
2017	24,638	22,952	18,156	77,611
연증	10.0	11.5	14.3	12.0

자료 : 국가해양국, 2007~2017년 「중국 해양경제공보」, KMI 작성
 주 : 연증 : 연평균증가율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중국의 해양경제생산총액



자료 : 국가해양국, 2007~2017년 「중국해양경제공보」, <http://www.soa.gov.cn/>, KMI 작성

2017년 해양경제생산총액 7조 7,611억 위안, 환보하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지난 5월에 발표된 「2017년 중국 토지·광산·해양 자원 통계공보」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해양생산총액은 7조 7,611억 위안으로 2007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이다. 해양생산총액 중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4조 8,234억 위안을, 해양관련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조 9,377억 위안을 기록했다. 또한, 제1차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3,600억 위안, 제2차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3조 92억 위안, 제3차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4조 3,919억 위안으로서 해양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6%, 38.8%, 56.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환보하이 지역은 31.7%, 창장삼각주는 29.6%, 주장삼각주는 23.4%이다. 환보하이 지역의 경우 비교적 좋은 산업기반과 해양경제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장삼각주 지역의 비중은 2007년의 38.3%, 2016년의 34.5%보다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주장삼각주는 2007년 19.1%, 2016년 22.5%, 2017년에는 23.4%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0년간 각 지역별 연평균증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장삼각주 지역의 연평균증가율은 14.3%로 환보하이 지역의 10.0%, 창장삼각주 지역의 11.5%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7년에는 해양경제혁신발전 시범도시의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중국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웨이하이(威海), 친황다오(秦皇岛),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Ningbo(宁波), 선전(深圳), 베이하이(北海) 및 하이커우(海口)의 7개 도시(구)를 '제2차 해양경제혁신발전 시범도시'로 지정한바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저자 소개

박문진 센터장
산둥사회과학원 환경해발전연구센터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지난 5월 산둥성 정부는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山东海洋强省建设行动方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3월 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산둥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둥의 해양 우위를 활용하여 해양개발을 확대하고 세계 일류 항만과 완벽한 현대 해양산업체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환경 등의 개발을 통해 해양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산둥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산둥성의 해양 현황과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해양 현황

1. 해양산업의 지속적 고성장

1990년대부터 산둥성은 ‘해상산둥(海上山東)’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2010년 최초로 국가해양경제발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1년 ‘블루 이코노미존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그동안 산둥성 해양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 해양총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조 4,826억 위안(한화 약 252조 원)으로 광둥성(1조 7,800억 위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해양총생산 규모의 19.1%, 지역 GDP의 20.4%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또한 수산, 해양생물 의약, 해양염업, 해양발전(發電), 해양교통운송 등 산업의 규모는 전국 1위 자리에 올라서 있다.

2.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우수

현재 산둥성은 성(省)급 이상 각종 해양기관(연구소, 대학 포함) 55개, 국가급 해양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10개를 보유,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인력도 전국의 40%로서 이중 고급인력은 전국의 70%(과학원 원사 22명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중대 해양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5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3. 해양자원 풍부

산둥성은 중국에서 해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이다. 해안선 길이는 3,345km로 광둥성에 이어 2위, 전국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해역면적은 육지면적과 비슷한 15만 9,500km²에 달하고 589개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항만물동량은 15억 톤 이상으로서 이중 칭다오, 르자오, 옌타이항의 항만물동량은 각 4억 톤을 초과하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5	06-29
종합지수	773.28	815.89
일본 향로	678.52	710.27
구주 향로	1,055.59	1,056.75
미서부 향로	612.18	619.83
미동부 향로	783.03	812.51
한국 향로	614.11	579.22

주 : '01-05' 2018년 1월 5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5	06-29
종합지수	1,387.18	1,105.50
석탄	1,441.08	1,150.92
곡물	1,464.37	960.38
금속광석	1,521.19	1,075.31
정유	1,262.87	1,280.19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2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1. 기본원칙과 방향

해륙통합관리 및 공급측 개혁 확대, 세계 일류항만과 완벽한 해양산업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조성 등을 바탕으로 국제 선진적인 해양과학기술교육 견인구역, 국가해양생태문명 시범구역, 국가해양경제경쟁력 핵심구역, 국가해양개방협력 선도구역, 국가 군민협력 선행구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력의 해양, 조화로운 해양, 아름다운 해양, 개방적인 해양, 행복한 해양’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표 1]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기본원칙과 방향

구분	주요 내용
기본원칙	·해륙통합관리 및 공급측 개혁 확대 ·세계 일류 항만, 완벽한 현대 해양산업체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 등이 핵심 ·국제 선진적인 해양과학기술교육 견인구역, 국가해양생태문명 시범구역, 국가해양경제경쟁력 핵심구역, 국가해양개방협력 선도구역, 국가 군민협력 선행구역으로 개발
육성 방향	활력의 해양 ·해양과학기술 및 체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해양문화의 소프트파워 향상 및 핵심경쟁력을 갖춘 현대화 해양경제 신체계 구축
	조화로운 해양 ·해륙통합관리 및 공간구조 개선 ·해양경제와 국방 수요 연계
	아름다운 해양 ·해양개발 목표에 해양생태문명 포함, 녹색발전이념 강화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엄격한 이행, 구축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구, 해양생태 환경의 지속적 개선
	개방적인 해양 ·일대일로 연계 강화, 해양협력플랫폼 구축, 해양협력모델 혁신, 블루 파트너 관계(蓝色伙伴关系) 구축 ·전방위적인 해양개방 협력 신구도 구축
	행복한 해양 ·주민의 해양인식 강화, 해양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해양경제발전의 경제, 생태, 문화 성과 향유 ·연안주민의 생명재산 안전 보장

자료 :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

2. 주요 정책목표와 공간적 개발방향

산둥성 해양강성의 정책목표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1단계인 2022년까지 해양과학기술 혁신력은 현저히 향상시키고, 해양총생산 규모 대비 해양 R&D 비중은 3.1%로 키우고, 해양총생산은 연평균 9% 성장을 확보하며, GDP 대비 해양총생산 비중은 23%로 확대할 예정이다.

2단계 2028년까지 해양총생산 규모는 3조 8,700억 위안(한화 약 658조 원)을 달성하고, GDP 대비 해양총생산 비중은 26%로 확대하며, 해양대성(大省)에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동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해양강성으로 전환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추진, 달성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3단계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국가 해양강국 전략에 부응하고 발달된 해양 산업, 첨단적인 해양과학기술, 우수한 해양생태 환경, 선진적인 해양문화, 효율적인 해양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강성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도구역 육성, 베이(Bay) 경제 건인, 도서연계 발전, 반도(半島) 기능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공간적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표 2]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주요 목표와 공간적 개발방향

주요 목표		주요 내용
단계별 정책목표	2022년	·해양과학기술 혁신력의 현저한 향상 ·해양 총생산 대비 해양 R&D 비중 3.1%로 확대 ·해양 총생산 연평균 9% 성장 확보 ·GDP 대비 해양총생산 비중 23%로 확대
	2028년	·해양 총생산 규모 3조 8,700억 위안(한화 약 659조 원)달성 ·GDP 대비 해양총생산 비중 26%로 확대 ·해양대성에서 해양강성의 전략적 전환 달성
	2035년	·기본적으로 국가 해양강국전략에 부응하고 발달된 해양산업, 첨단적인 해양과학기술, 우수한 해양생태환경, 선진적인 해양문화, 효율적인 해양관리 체제를 확보한 해양강성 목표 달성
공간적 개발방향	선도구역 육성	·칭다오해양과학시티, 동북아국제항운거점, 연해 중심도시 등 우세를 활용하고 칭다오블루실리콘밸리, 국제크루즈모항, 군민 융합혁신 시범구역 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선진적인 해양혁신센터, 해양발전센터, 국제해양시티로의 개발을 가속화
	베이(Bay) 경제 건인	·쥔저우만(胶州湾), 라이저우만(莱州湾)을 기반으로 양대 해양경제벨트 조성 즉 쥔저우만 지역은 해양첨단산업클러스터, 해양과학기술혁신기지 등으로 개발하고 라이저우만은 수산, 해양광물 자원개발, 해양신에너지, 첨단 해양화학공업 등 산업을 육성
	도서연계 발전	·지역에 따라 5대 도서군으로 구분하고 도서 및 해역의 자원특징에 따라 해양생태목장, 해양문화관광, 항만물류, 해양생태관광 등 산업을 개발
	반도기능 강화	·7개 연해도시와 10개 내륙도시의 연계개발 강화와 해륙 종합교통운송망을 구축하며 산업과 혁신, 물류, 생태사슬 등 제반 분야의 연계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블루경제 시범구역으로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세계일류항만 개발을 바탕으로 대외협력을 위한 해상통로 구축 ·일대일로 및 빙상실크로드 개발 참여 가속화 ·원양 및 극지수산, 광물자원 개발 추진 ·해외산업단지 개발 추진

자료 :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

3. 10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상기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혁신, 해양생태환경 보호, 세계일류항만 개발,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해양 프로젝트, 군민융합, 해양문화 진흥, 해양개방협력 확대, 해양종합처리능력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향상의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략별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3]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10대 추진 전략

추진 전략	세부 과제	2022년 목표
해양과학기술 혁신	·주요 혁신플랫폼 지원 확대 ·핵심 과학기술혁신프로젝트 추진 ·기업의 혁신주체지위 강화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추진 ·해양인력 적극성 고취	·해양기업의 R&D기부 보유 비중 30%로 확대 ·해양 하이테크기업 700개사 육성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생태보호체계 개선 ·해륙오염방제체계 개선 ·자원순환이용체계 개선 ·해양모니터링체계 개선	·주요 해역수질 합격율 90% 이상, 자연 안전 보유율 40% 이상 확보 ·효율적인 실시간 해양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세계일류항만 개발	·항만자원통합 ·스마트항만 구축 ·녹색항만 개발 ·화물 집합·분산 시스템 개선 ·항운서비스 강화	·항만물동량 16억 5천만 톤(대외교역 8억 톤), 컨테이너물동량 2,800만 TEU 달성 ·주요 항만,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도입 ·주요 항만의 철도 연계율 85% 달성 ·컨테이너 복합운송량 연평균 10% 증가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첨단장비 제조 ·해양생물의약 ·해수담수화 및 종합이용 ·해양신에너지 신소재 ·해양서비스 ·해양환경보호	·성급 해양신산업단지 50개 개발, 해양총생산 대비 25%로 확대 ·해양생물의약산업 470억 위안 달성 ·해수담수화 처리능력 100만 톤/일 확보 ·해상풍력발전 3GW(기가와트) 설치 ·해양환경보호산업클러스터 10개 개발
해양전통산업 업그레이드	·해양관광, 수산, 해양식품 ·조선업과 해양화공	·테마 마을 조성, 해상스포츠 발굴 ·해양어획량 25% 감축
스마트해양 구축	·해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정보 기술장비의 국산화 추진 ·해양종합 입체 관측망 구축	·글로벌해양빅데이터센터 구축 ·100개 해저관측소, 100개 해상다기능(관측, 구조, 보급, 관광 등)플랫폼 설치
군민융합산업 체계 개선	·군민융합 혁신시범구 개발 ·군민융합산업체계 개선 ·군민융합혁신협력 확대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공유 추진	-
해양문화 진흥	·해양의식 강화 ·해양문화의 계승과 발전 ·문화산업 육성	·친해(亲海) 환경 조성 ·기간산업의 하나로 육성
해양개방협력 확대	·대외개방통로 확보 ·경제협력 확대 ·과학기술 협력수준 향상 ·국내 지역 간 협력 강화	·컨테이너 정기노선 50개 신설 ·크루즈 단체관광객 15일 무비자정책 ·5개 해외 해양산업단지 개발 ·10개 국제해양 공동연구센터 설립
해양종합 관리능력 향상	·해양경제 관리능력 향상 ·해양 종합 범집행능력 향상 ·국제해양관리 참여능력 향상	-

자료 :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

4. 주요 지원책

상기 방안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통합계획과 자원배치, 재정지원과 융자 투자서비스, 과학기술 지원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기능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강화, 시범사업과 핵심 프로젝트 추진, 감독 및 평가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 4]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주요 지원책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정책 및 제도 혁신	·통합계획과 자원배치, 재정지원과 융자투자서비스, 과학기술 지원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을 통해 정부지원 강화 ·성급 재정에서 연평균 55억 위안 이상 지원 ·해외원양기지 개발 프로젝트 당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해양신약 개발 및 산업화 기업 당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해양신산업을 위주로 세금 감면정책 부여
조직기능 강화	·해양발전전략계획 전담기관(领导小组) 기능 강화 ·해양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해양산업협회, 해양기업연맹 등 사회단체 역할 강화
시범사업 및 중대 프로젝트 추진	·자유무역구 성공경험의 벤치마킹을 통해 블루실리콘밸리 등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개발 가속화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글로벌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두기업의 투자유치 추진
감독 평가체계 개선 및 홍보 교육 강화	·해양강성 육성에 관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종합평가체계에 편입 ·해양발전전략계획 전담기관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행에 대한 실사 수행 ·정부, 기업 등 각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자료 :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

3 시사점

이 방안은 향후 5년 나아가 17년간 산둥성의 해양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과제 및 정책적 지원 조치를 공표함으로써 산둥성 정부와 업계 및 사회 각층이 이에 따른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해양강성 비전을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해양강성 비전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해양과학기술 혁신과 해양생태 환경보호, 세계 일류항만 개발 그리고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우선 해양과학기술 혁신전략에서는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집중적으로 블루 실리콘밸리와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의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며 칭다오와 웨이하이의 해상종합테스트 베드 등의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즉 해양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해양과학기술 혁신센터로 발전함과 더불어 해양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환경 보호전략에서는 해양주체기능구 계획을 엄격히 이행하고 연안 1km 육역 이내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며 오염 및 침식이 심각한 해역과 해도에 대한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요 해역에 오염물 총량제를 도입하고 해양생태문명 종합시범구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시간 해양모니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 일류항만 개발전략에서는 성정부 산하에 항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항만투자그룹을 설립하며 컨테이너, 광석, 액체화물 등 품목별로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MP)를 도입하고 향후 3~5개 자동화터미널을 추가로 개발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둥국제항운센터의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해양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해양플랜트, 해양생물의약, 해수담수화와 종합 이용, 해양신에너지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세수감면 정책 부여 등을 강화하며 향후 5년 이내 50개 해양신산업단지의 개발과 더불어 해양 총생산 대비 신산업의 차지비율을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상기 전략들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산둥성부는 360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총 8,000여억 위안(한화 약 13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교류가 밀접한 산둥지역의 해양강성 발전방안은 한국에 있어 새로운 진출 및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환서해(황해)경제벨트 개발을 제시하고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인바, 향후 세부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산둥지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둥지역의 국제항운센터 개발을 위한 항만자원 통합 및 구조조정은 환황해권 항만물동량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해양과학기술 혁신센터의 개발정책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지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이전 완료로 그동안 추진해온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단계적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해양수산 R&D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2기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는바, 산둥지역의 해양생태환경 보호정책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선박, 자동차 등 제조업 영역 외자 진입 제한 철폐에 관한 국무원 통지 배포
-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항만 비용 부분적 자율화 추진
- 상하이해사대학교, 글로벌해운연구센터 설립
- 쓰촨성 교통운수청, 후저우(泸州)·이빈(宜宾)·러산(乐山)항 통합방안 의견 수렴회 개최
- 푸젠 취엔저우(泉州), 대 대만 수산물 수입량 대폭 증가

- CSSC청시(中船澄西), 글로벌 최대한 70,000DWT 우드칩 전용선(Woodchip Carriers) 4+4척 수주 획득
- 허베이(河北)항만 APP 정식 개통

해양 · 수산

- 「중양기업 혁신발전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심원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촉진
- 산둥성, 해양 표준화 혁신 사업 추진
- 해양 빅데이터 산업연맹 설립
- ‘일대일로’ 전략, 지중해 지역의 해양 경제 발전 이끌어
- 장쑤성 담수어업 생산액 중국내 1위, 따자시에(민물 게) 등 특수 수산물 양식 면적의 비중은 76% 초과
- 홍콩, 입법회에 후쿠시마를 제외한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제의

해운 · 항만 · 물류

- 향후 5년 내 200척 LNG 추진선, 한강(汉江) 영역에 투입될 예정
- 선전 츠완(赤湾)항, 246억 5천만 위안에 초상국항만 38.27% 지분 매입
- CCSC SHIPPING, 올여름 상선 10척 이상 북극항로 운항 예정
- CHINA MERCHANTS Group과 JD.COM 전략적 협력 협의 체결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동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선박, 자동차 등 제조업 영역 외자 진입 제한 철폐에 관한 국무원 통지 배포

최근에 국무원은 「적극적으로 외자를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积极有效利用外资推动经济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이하 「통지」로 약칭)에서 농업영역, 석탄, 비금속광물 등 광업영역, 선박, 비행기 등 제조업 영역의 외자 진입 제한을 취소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통지는 6개 부분에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에 관한 정책조치를 제안하였다.

외국계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통지」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 구(舊) 공업기지에 육상·항공 연합개방통상구와 복합운송허브를 건설하여 하천·해상, 철도·항공, 철도·해운 등 복합운송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중국-유럽 정기화물열차 터미널, 통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유럽 정기화물열차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중국-유럽 정기화물열차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의 조절 기능을 보완, 운송구조를 조정하고, 운송효율성을 개선하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영역의 비용징수행위를 감독 관리하며 서부지역의 물류비용을 인하한다.

투자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진기술,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이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자유무역시범구가 개방 확대 및 외자 유치 부분에서의 선도 작용을 강화한다. 외국자본이 현대농업, 생태건설,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산업으로 진입하도록 격려하고 중서부 지역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이외에 통지는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 높은 표준으로 시범작용이 가능한 국제협력단지를 계획하고 건설하여 중국 및 외국기업, 기관, 정부부서들이 연합하여 통합개발을 진행하고 단지가 국제자본, 인재, 기관, 서비스 등 영역에서 선두로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국제선진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외국기업들이 지역 내 단지, 지역 내 여러 단지 등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자료 : 中国水运报 2018. 6. 20.>

2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항만비용 부분적 자율화 추진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시키고, 항만비용을 재정비하고, 항만분야의 질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항만비용을 부분적으로 자율화하고, 시장조사를 실행하고, 동시에 선박에스코트와 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예인비용의 재정비를 결정했다. 관련 통지는 다음과 같다. 바지선 이동비와 특수트리밍비용을 자율화하고, 시장조사를 실행하고, 항만하역비를 계산범위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경영인과 선측, 화물측 혹은 그 대리인 협상을 통해 수납 기준을 확정한다. 항만경영인은 항만하역비 이외 바지선 이동비, 특수트리밍 작업을 수납비용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법률, 법규, 규정,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 외에 어떠한 부문 혹은 기관도 예인서비스를 사용한 에스코트나 보호를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항만 내 통행 시 액화천연가스 선박 안전작업표준 등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예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에스코트를 해야 하며, 예인비용은 <항만비용 계산방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기타 선박이 항만 내 통행 시 자율적으로 예인서비스를 신청하여 에스코트를 할 수 있으며, 예인비는 선측 혹은 그 대리인과 예인서비스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선박이 항만 내 통행 시 자발적으로 예인을 신청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예인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인비는 선측 혹은 그 대리인과 예인서비스 제공업체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중형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액화천연가스 선박안전작업표준 등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연해운송 및 예인 통용선박으로 에스코트를 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실제 작업시간과 예인선박을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실제작업시간이 매 5시간에 예인선 1척이라면(5시간미만도 5시간으로 계산), 매시간 예인선박 요금률은 <항만비용 계산방법>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항만경영인은 2018년 7월말 이전까지 <항만비용 계산방법>과 이번 통지 규정을 철저히 대조하여 항만경영인 수납비용상황표(첨부)를 기재하고, 대조상황에 대한 보고를 소재지 항만행정관리부와 가격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소재지 관련부문은 관할 구역 내의 항만에 대해 즉시 감독을 하고, 보고(첨부의 항만경영인 수납비용상황표)에 대한 감사는 11월 말 이전까지 각 성급 교통운수(항구)주관부문과 가격주관부문에 보고하고, 각 성급 관련부문은 2018년 말까지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두 부문은 각 지역 항만수납비용 실제상황을 무작위 추출 조사한다.

본 통지는 연해, 창장간선 주요 항만 및 기타 모든 대외개방항만에 적용되며, 2018년 6월 20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통지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교통부의 항만예인서비스 경영시장관리에 대한 통지>(교통운수부 수운국 2007년 32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자료 : 港口圈, 2018. 6. 16.>

3 향후 5년 내 200척 LNG 추진선, 한강(汉江) 영역에 투입될 예정

향후 5년 내 200척의 신형 LNG 추진선을 한강에 투입하여 노후 디젤동력선박을 대체한다. 최근 후베이성해운항만관리국(湖北省港航管理局)과 중국인프라건설항만유한회사(中国基建港口有限公司) 간 연합을 통하여 한강의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소개에 따르면 한강은 창장중부(长江中游)의 가장 긴 지류(支流)이다. 그러나 기존 운항선박들은 선령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선박이 많고, 크기가 작고 표준화 정도가 낮아 현재의 환경보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강은 곧 항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3,000~5,000톤급 크기의 LNG를 동력으로 하는 컨테이너 및 벌크 겸용 선박이 필요하고 운송능력 제고와 동시에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 후베이성해운항만관리국과 중국인프라건설항만유한회사는 전략협력 협의를 체결하였다. 우한통상위동기술유한회사(武汉通商伟动科技有限公司)에서 사전에 한강 녹색에너지 동력선박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다. 회사책임자 장웨이궈(张卫国)는 2022년 4월 전까지 200척의 신형 LNG 추진선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디젤추진선을 총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LNG 컨테이너 및 벌크 겸용선박의 적재능력은 3,000~5,000톤급이고 현재의 주력선박보다 배 이상 크고 현재 한강에 컨테이너선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한강 수상운송능력의 부족한 상황을 완화하고 낙후한 운송수단을 점차 대체할 것이다. 회사는 사양(沙洋), 중샹(钟祥)과 셴타오(仙桃)에 3개의 LNG충전소를 구축하여 청정에너지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 楚天都市报, 2018. 6. 19.>

4 선전 츠완(赤湾)항, 246억 5천만 위안에 초상국항만 38.27% 지분 매입

6월 20일 저녁, 선전 츠완A(000022) 재편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는 선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서부 항만 동종업계 경쟁이 일단락 될 것임을 의미한다. 공고에 따르면, 선전 츠완은 주당 21.46위안의 가격으로 초상국투자발전유한회사에게 11억 4,900만 주를 발행하고, CMID 소유의 초상국항만(00144.HK) 38.72% 지분(246억 5천만 위안)을 인수했다. 이외 초상국홍콩과 선전 츠완은 공동행동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초상국항만 23% 지분의 표결권에 대해 표결상 일치를 약속했다. 동시에 선전 츠완은 40억 위안 미만의 관련 자금을 모집할 것이다.

금번 거래지표의 자산 거래가격은 246억 5천만 위안으로 선전 츠완에 귀속되는 소유자 권익이 49억 2,300만 위안, 거래가격에서 소유자 권익의 비율은 500.71%에 달하고 5,000만 위안을 넘는다. 따라서 금번 거래는 거대 자산의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실지배는 여전히 초상국 그룹이기 때문에, 금번 지분변동은 상장회사 지배지분 변동에는 더욱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금번 거래는 상장시장 재편이라 할 수 없다.

금번 거래 이전, 선전 츠완의 핵심업무는 컨테이너, 벌크의 항만 상하역 업무로, 주로 선전 츠완(赤湾) 항만구역, 동관 마충(麻涌) 항만구역 합계 6개 컨테이너 선석 및 12개 벌크 선석에서 이루어졌다. 금번 합병의 대상인 초상국항만의 주 업무는 컨테이너와 벌크의 항만 상하역, 저장보관, 운송 및 기타 관련서비스로 경영 범위는 주로 선전 서부항만, 산토우항, 순더항, 샤먼 장저우(漳州)항, 스리랑카 콜롬보항 및 함반토타항, 토고 로메항, 브라질 파라나과항 등 합계 30개 컨테이너 선석, 16개 벌크선석, 26개 다목적 선석 및 4개 기타 선석이다.

금번 거래는 선전 츠완의 주요 영업업무에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선전 츠완의 주요 업무는 여전히 항만운영이 될 것이다. 금번 거래로 선전 츠완 산하 운영의 항만자본이 대폭 증가하고, 주요 영업업무, 항만분야에서의 지위, 수익능력이 모두 상승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의 종합능력과 경쟁력도 전방위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수치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선전 츠완의 자산규모는 81억 4,700만 위안에서 1,249억 6천만 위안으로 1,433.77%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영업수입은 6억 1,600만 위안에서 21억 7,300만 위안으로 252.86%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모회사의 순이익은 1억 4,700만 위안에서 4억 4,300만 위안으로 202.33% 증가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의 자산규모는 79억 7,500만 위안에서 1,143억 8,400만 위안으로 1,334.19% 증가했다. 2017년도 영업수입은 24억 5,600만 위안에서 75억 4,500만 위안으로 207.16% 증가했다. 2017년도 모회사의 순이익은 5억 400만 위안에서 23억 3천만 위안으로 361.77% 증가했다. 금번 발행 지분구입 후 선전 츠완의 지분보유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초상국홍콩이 초상국강통(招商局港通), Broadford Global (布罗德福), CMID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전 츠완의 15억 7,500만 위안 지분을 보유하며 함께 선전 츠완의 지배지분 87.81%로 표결권행사를 하며 여전히 선전 츠완의 간접 지배주주이다.

< 선전 츠완 지분 상황 >

주주	주식 발행으로 자산구매 전		발행주식 수량(주)	자산 구매 후	
	보유 주식(주)	비율(%)		보유 주식(주)	비율(%)
CMID	-	-	1,148,648,648	1,148,648,648	64.05
초상국강통	370,878,000	57.52	-	370,878,000	20.68
브로드포드 (BROADFORD)	55,314,208	8.58	-	55,314,208	3.08
기타 A주 및 B주 주주	218,571,522	33.90	-	218,571,522	12.19
합계	644,763,730	100.00	1,148,648,648	1,793,412,378	100.00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동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5월 18일, 바이징타오(白景涛) 선전 즈완A 대표는 주요 자산재편 투자자 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향후 선전 즈완과 초상국항만의 업무 배분은 재편이 완료된 후 선전 즈완A는 초상국항만을 실질배하게 될 것이며, 직간접적으로 초상국항만 산하의 역내의 항만자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는 금번 재편 후 초상국그룹 산하 항만자산 구조를 정리하고 두 상장회사의 수익지속 가능성과 종합시장 경쟁력, 효과적 협동시스템, 종합능력 향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A주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선전 서부항만 동종업계 경쟁도 완화될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유래가 깊다.

2012년 9월 17일, 초상국항만의 전신인 초상국글로벌과 난산(南山)그룹은 선전 즈완A의 지분위탁에 서명했다. 협의 내용은 난산그룹은 소유하고 있는 선전 즈완 57.52%의 A주 지분 전부를 초상국글로벌에 위탁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위탁전후, 선전 즈완 지분 구조와 실질배에는 변화가 없이 초상국그룹이 맡게 될 것이다. 선전 즈완과 초상국항만 간에는 어느 정도 동종업계 경쟁이 있었다. 지분위탁관리 서명 후, 초상국항만은 선전 즈완의 직접 지배층이 되었다. 직면한 업계 경쟁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동종업계 경쟁문제에 대한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은 3~5년 동안 지속되어 2017년 9월 16일 끝났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다. 이어서 초상국항만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동종업계 경쟁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2월 5일, 초상국항만의 간접 전액출자 자회사와 초상국그룹의 간접 전액출자 자회사는 지분매입 협의를 하여 초상국항만은 초상국그룹에게 즈완항 기존 발행의 주식자본 약 25% A주 및 8.58% B주 지분양도에 동의했다. 같은 날, 초상국항만이 간접적으로 약 37% 지분을 소유한 중국 난산과 초상국그룹도 매입협의를 했다. 중국난산은 초상국그룹에게 즈완항 기존 발행의 주식자본 약 32.52% A주 지분양도에 동의했다. 이 매입이 완료된 후, 선전 즈완 지배주주는 초상국항만에서 초상국강통(港通)으로 바뀌지만 실질배는 변동 없이 초상국그룹이다.

선전항은 동과 서로 나뉜다. 초상국항만과 엔티엔항그룹은 각각 동서부 항만구역을 경영한다. 이중 초상국항만은 총자산이 1,000억 위안을 넘어 현재 선전 서부부두에서 41개 선석, 해안선 총 길이 12,524m를 경영하고 있으며, 2017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1,118만 TEU를 달성했다. 2017년 1월, 초상국항만은 선전 즈완A, 서코우 컨테이너터미널유한공사, 즈완 컨테이너터미널유한공사, 선전 마완(妈湾)항무유한공사, 자오상항무(선전)유한공사, 선전 하이싱(海星)항구발전유한공사 6개 기업의 전면적인 협력을 이끌어 항만 전체적 전략적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엔티엔항그룹은 선전국자위 전액출자사로 선전 엔티엔항의 건설에 참여했고 현재 컨테이너 선석 16개, 다용도 선석 3개를 운영 중이며,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박 정박이 가능하다. 또한 다찬완(大铲湾)의 해안선 토지 비축자원도 있다. 엔티엔구역과 다찬완구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선전항 전체 물동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본지는 초상국항만과 선전 즈완 간 자산이동은 선전 서부항만 간 동종업계 경쟁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항만업무의 종합경쟁력을 전면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국 상장 항만그룹 시가는 순자산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서 초상국항만은 상장기업의 시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거래완료 후 초상국그룹 우수항만자산은 선전 즈완에 유입될 것이고 역내의 플랫폼 구조를 실현할 것이다. 선전 즈완은 초상국항만의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세계화 업무구조를 통해 선전 지역 항만자원의 어느 정도 통합을 실현할 것이며, 선전 모항을 세워 적극적으로 '위에강야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이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는 국가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다. 동시에 초상국항만의 풍부한 국내외 항만운영 경험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해외항만, 지역, 도시를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국제적 시야와 확장능력의 ‘일대일로’ 전세계 협력, 발전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금번 합병 이후로 본지는 선전 츠완과 초상국항만 앞에 두 가지 흥미로운 문제가 당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첫째는 모회사 자회사의 맞바꿈 이후 양측의 인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 다음으로 2016년 초상국글로벌은 초상국항만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회사의 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사회 각계에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향후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선전 츠완은 이 이름을 대중 앞에 더욱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자료 : 港口圈, 2018. 6. 21.>

5

「중양기업 혁신발전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심원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촉진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와 국무원 국자위(国资委 :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는 「중양기업 혁신발전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중양기업이 심·원해(深远海) 해양플랜트 등 산업을 중심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점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고 제기했다.

해양플랜트는 해양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이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해양경제에도 새로운 발전 추세가 나타났다.

「의견」은 중양기업 혁신발전의 전체요구를 명시했다. 심·원해 해양플랜트, 생물 의약 등 중요 산업 분야에서 일련의 국제영향력과 경쟁력이 있는 혁신형 중양기업을 육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니터링 평가와 홍보·보급 등의 관련 보장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중양기업들이 심·원해 해양플랜트에 관한 중점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해양플랜트 산업기술의 진보와 산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다. 중양기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지탱주로서 50%의 기업 국가중점실험실은 중양기업에서 설립되었다. 중양기업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수준이 세계 선진수준에 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해양플랜트 기업에 대한 핵심경쟁력 및 자금 지원은 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산업체인을 강대하게 구축하려면, 인재의 육성은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고, 자금 혁신은 핵심이며 자금투입은 보장이다. 해양플랜트 기업은 자신의 발전특징과 결합하고, 해양플랜트 장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야 한다. 중국의 심·원해 해양플랜트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 혁신발전의 내생적 성장동력을 자극해야 한다. 이에 기업의 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해양플랜트 장비 제조업 지속가능 발전 액션플랜(2017~2020)」 및 「해양기계설비 해상실험 관리규범」 등 일련 정책의 발표, 그리고 국가가 업계 표준화 추진을 위한 노력은 모두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동력과 지원이 되었다. 이런 이로운 발전조건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양플랜트 장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산업체계가 더욱 개선되며 산업구조가 중 고급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6. 21.>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7년 해양 경제생산총액
- ▶ 전문가 칼럼 : 산둥성 해양 강성(强省) 발전방안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6 산둥성, 해양 표준 혁신 사업 추진

최근, 산둥성 정부는 「국가 표준화 종합 개혁 시험사업 추진에 관한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둥성은 해양강성을 위한 해양 표준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해양생물, 해양신에너지, ‘스마트 해양’ 및 ‘해양목장’ 등 분야의 국제표준 20개, 국가표준 30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방안」은 산둥성에서 국가 해양장비 기술표준 혁신기지를 건설하고,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발전, 해양생태보호, 해양종합관리 등 해양강성을 위한 다분야의 표준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해양경제와 해양생태 분야에서 세계 선진수준에 달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산둥성은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와 동잉(东营) 등 지역에서 국가 기술표준 혁신기지의 건설을 지지하고, 일련의 자주 핵심기술을 지닌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웨이하이에서 해양 표준 품질 전략발전 연구 플랫폼의 건설을 지지한다. ‘스마트 해양’ 사업의 실시를 중심으로 해양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전송에 관한 핵심 기본 표준의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양위성 원격탐지 등 새로운 기술에 관한 국내 선진 표준을 제정하여 해양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안」에 의하면, 해양환경 무인기 원격 측정기술, 무인함 모니터링 기술, 3D 수중 음파 탐지기술과 수중 가시화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해양 모니터링 감측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선진 기술 표준에 대한 연구와 제정을 추진하고,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촉진하며, 해양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상목장’과 ‘해양목장’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웨이팡(潍坊)과 옌타이에 생태어업 표준화 시범기지를 건설한다.

총량통제, 생태 레드라인, 허가 제한(区域限批)¹⁾, 오염배출 허가, 환경영향에 대한 감독·관리 등 제도와 부합한 해양생태환경보호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생태환경안전을 보장해 주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 품질 관리, 바다로 향한 오염물의 배출,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환경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처리, 해양생태환경 평가, 해양생태의 복원과 보호 및 해양생태환경의 감독 등에 관한 표준은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칭다오(青岛) 해양생태 문명 종합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 해양생태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의 표준화 시범구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관측, 해양재해 예방·감소, 해상구조 서비스 보장과 해양예보 등 해양관리 관련분야의 표준 제정을 촉진하여 해양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6. 21>

1) 허가제한(区域限批) : 환경보호를 위해 일개 지방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